

## “제2의 성”이라는 명제의 서사화 -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을 중심으로\*

문 화\*\*

### 요약

본 논문은 박완서의 『서 있는 여자』(1985)가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The Second Sex)”이라는 당대의 유력한 여성 해방 명제를 공유하면서도 해방이 단순히 이론을 통한 각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성에 대한 “이중구속(Double bind)”이 심각했던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서 있는 여자』에서 시도되고 있는 “평등한 결혼”은 여성 억압을 자연이 아닌 사회 제도의 문제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당대의 이상적 규범이기도 한 중산층 핵가족 모델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보부아르의 사상과 공명하는 대목이 있다. 나아가 『서 있는 여자』는 “평등한 결혼”이 좌초하는 서사를 통해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육체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육체의 “취약성(주디스 버틀러, Vulnerability)”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몸과 연대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점을 보여줬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라는 명제와의 비교를 통해 『서 있는 여자』가 당대의 여성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박완서, 서 있는 여자, 여성 해방,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이중구속, 육체의 취약성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90993)

\*\* 서울대 인문대학 강사

목차

1.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2. “제2의 성”이라는 명제와 과도기의 여성들
3. 만들어진 여성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험
4. 육체의 “취약성”
5. “제2의 성”이라는 명제의 서사화와 그 의미

## 1.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본 연구는 서구의 주요 페미니즘 이론의 하나인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08~1986)의 “제2의 성”이라는 명제가 1980년대 한국여성문학운동 그룹에서 널리 수용되었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박완서(1931~2011)의 “여성 해방 소설”<sup>1)</sup> 중 하나인 『서 있는 여자』<sup>2)3)</sup>가 당대 유력한 페미니즘 이론이 지닌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서사로 그 명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동시에 한계를 극복할 방향을 보여주는 한층 발전

1)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 있는 여자』(1985)를 비롯한 『살아있는 날의 시작』(1980),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를 말한다. 세 편의 소설을 ‘여성 해방 소설’로 명명해 연구한 것은 김은하이다. 다음을 참고. 김은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5(-), 2018, 7-36면.

2) 『서 있는 여자』의 연재 당시 제목은 “떠도는 결혼”(『주부생활』, 1982년 4월~1983년 11월, 총 20회 연재)이었으나, 단행본(『서 있는 여자』, 학원사, 1985)으로 출간되면서 바뀐 것이다. 이 작품은 “야심장편”이라는 제목과 함께 연재되었는데, 1·2회의 경우 짧은 컷 머리에 청바지 차림을 한 젊은 여성을 그린 컬러 삽화도 함께 실렸다. 당시 『주부생활』에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작가들의 소설이 활발히 연재되었고, 연재 후 단행본으로 곧 출간되었다. 박완서가 『주부생활』에 연재할 당시 인기 드라마 작가 김수현 역시 『그늘과 장미』라는 장편을 연재했고 이 역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3) 『서 있는 여자』가 다른 박완서의 작품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여성잡지 『주부생활』에 연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여성지에 연재된 소설은 당대 대중들에게 널리 수용된 작품으로 작품의 창작과 수용사를 통해 당대의 무의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박완서의 『서 있는 여자』의 창작과 “제2의 성”이라는 명제 사이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그간 『서 있는 여자』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자주 제기되었던 “‘평등한 결혼’의 나이브함”<sup>4)</sup>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한 그동안 박완서에 대한 연구에서 좀처럼 부각되지 않았던 육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sup>5)</sup>의 유래와 그 함의를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다. 다음으로는 보부아르의 이론이 『서 있는 여자』의 신세대 여성 주인공 연지의 현실과 충돌하는 지점에 주목함으로써,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자기 길을 찾는 페미니스트 서사의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1970년에 『나목』으로 등단해 개발독재기 한국 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중산층 계급의 양태를 꿰뚫히게 그려낸 박완서는 1980년대 들어서 여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고 ‘여성해방문학’ 운동<sup>6)</sup>의 한 주축인 ‘또 하나의 문화’의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박완서가 직접적으로 보부아르의 이름이나 “제2의 성”이라는 명제를 언급한 경우도 산문집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그는 1986년 4월 보부아르 사망 직후 발표된 애도사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눈으로 바라”<sup>7)</sup>볼 수 있었던 데에는 보부아르의 영향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에는 “여자는 태어나

4) 정순진, 「천의무봉’과 작위적 상황 설정」, 『비평문학』(8), 1994, 588-606면 참고.

5) 한경희는 박완서의 소설에서 “여성의 결핍과 탐욕”이 “‘팅 빈’ 기관으로서의 자궁으로 흔히 상징”(282면)되는 등, 여성성에 빗대어 자본주의 비판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경희,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와 교섭하기」, 『페미니즘 연구』 16, no. 2, 2016, 267-315면 참고.

6)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과 실천에 대한 서술은 다음을 참고.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 해방 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2016, 409-454면;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또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 2018, 7-36면; 김정은, 「또 하나의 집회: 여성주의 문화운동 ‘또 하나의 문화’가 지닌 ‘제3의 장소성」, 『구보학보』 27, 2021, 213-70면; 안지영, 「여성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정치학: 『또하나의 문화』의 발간 주제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 2021, 365-404면.

7) 박완서, 「위기의 남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수』, 문학동네, 2015, 130면.

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명제가 직접 언급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명제를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심문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는 여성 해방이 단순히 특정 명제의 수용이나 각성으로 완수될 수 없는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구 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수용의 예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에서 여성학, 여성문학이 정초되던 시기에 일어난 페미니즘 이론의 수용과 확산에 대한 연구는 최근 여성문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김영선<sup>8)</sup>은 1970년대 이후 “한국여성문제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위해”, “집합적/개인적 학술실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이”<sup>9)</sup> 수행되었음에 주목한다. 또한 허윤은 이 시기의 서구 여성 해방 이론을 소개하는 “번역서를 편집, 기획하는 과정에서”<sup>10)</sup> 일어난 적극적인 해석과 실천 행위에 주목하고 고찰할 바 있다. 한편, 이미영<sup>11)</sup>은 1975년을 기점으로 분명해진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유입”<sup>12)</sup>이라는 현상에 주목하고, 강석경의 첫 장편 『순례자의 노래』라는 구체적인 텍스트에서 그 흔적을 살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sup>13)</sup>

8) 김영선의 연구는 세 권의 선집(『여성문학의 도전』,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여성사회철학』)의 구성을 분석하고 각 매체의 특질을 고찰한다. 김영선,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실천과 여성학」, 『여성문학연구』 37호, 2016, 39-62면.

9) 김영선, 위의 논문, 41면

10) 허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 28호, 2012, 239-264면 참고. 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에서 번역된 페미니즘 이론서의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번역 과정에서 일어난 적극적인 개입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 이미영, 「강석경의 텍스트와 여성-성장-서사의 재맥락화」, 『구보학보』 25(1), 2020, 127-170면.

12) 이미영은 한국여성문학학회의 학술대회(2019년 5월 11일 개최)의 주제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희와 변환”에서 가져온 표현임을 밝히고 있다. 이미영, 위의 논문, 132면 각주 9번 참고.

13) 이미영은 강석경의 텍스트가 “보부아르에 대한 공명에서 쓰인 텍스트이지만, 섹스/젠더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젠더화된 ‘여성-되기’에 관한 전복적인 사유를 보여줌으로써 보부아르를 초과”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의 논문, 143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 있는 여자』는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에서 여성주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1970·80년대 지식장의 영향 속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 시기 박완서는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젠더 이슈들을 다룬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여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으나 당대의 문단과 학계로부터 충분히 주목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당대의 비관<sup>14)</sup>을 재비판하고, 1980년대에 발표된 “여성 해방 3부작”의 의미를 재발견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이해령의 논문은 1980년대 ‘또 하나의 문화’의 동인으로 활동한 박완서 문학의 정치성을 고찰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여성문학의 의미화가 편협하게 이루어진”<sup>15)</sup> 원인이 1980년대 여성문학의 성취를 충분히 의미화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지적했는데 그 의미가 있다. 김양선<sup>16)</sup>은 여성 인물들의 양면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박완서의 소설은 익숙한 가정소설의 틀을 이용하지만 그 소설의 틀을 깨뜨리”<sup>17)</sup>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을 지적한다. 김은하<sup>18)</sup> 역시 “외출의 도발성에 만족하지 않고, 여성을 미성숙 상태로 묶어두는 후견 제도와 문화의 조건들을 비판하며 자유를 향한 길 찾기를 시도”<sup>19)</sup>한 데 박완서 소설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계몽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 있는 여자』를 비롯한 박완서의 여성 해방 소설에 주목한 연

14) “여성문제를 민족문제나 계급문제와 무관하게 순전히 남녀 대립 구도로만 파악하면서 ‘드라마게임’ 류의 유치한 여성권리선언으로 왜곡하는 이런 류의 작품이 진정한 여성해방문학이 될 수는 없다.”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 해방 문학론에서 본 80년대 문학」, 『창작과 비평』 67(1), 1990, 67면.

15) 이해령, 위의 논문, 445면.

16)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 문학 이론과 비평』 54(-), 2012, 215-234면.

17) 김양선, 위의 논문, 221-222면.

18) 김은하, 위의 논문.

19) 김은하, 위의 논문, 24면.

구<sup>20)</sup>가 활발하게 제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박완서의 『서 있는 여자』에 대한 연구는 당대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여성 해방 서사의 함의를 밝혔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앞서의 연구들이 박완서가 여성주의 담론의 수용과 확산<sup>21)</sup> 속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소설을 창작해왔다는 데에 주목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과 경합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마련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본 논문은 문제의식을 갖는다. 『서 있는 여자』의 연재를 마치며 작가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하는 바람직하

20) 또한 본고의 분석대상인 『서 있는 여자』에 대한 개별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신셋별은 이 두 모녀의 실험을 “근대의 계약 주체인 ‘시민’이라는 추상 속에 ‘성차라는 조건과 여성의 구체적 삶이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평하고, 『서 있는 여자』를 여성-시민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이는 작품으로 읽는다. 이는 그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두 모녀의 “주체성에 대한 실험”의 정치성을 밝힌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셋별, 「박완서 장편소설 『서 있는 여자』의 페미니즘 정치학적 의미: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본 시민성의 젠더 구조», 『여성문학연구』 45, 2018, 38-39면 참고. 김문정 역시, 연지의 결혼의 ‘실패’가 연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결혼이 지니는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김문정, 「서 있는 여자에 나타난 계약으로서의 결혼과 ‘여성적 글쓰기」, 『한국문학연구』 60, 2019, 231-254면 참고. 이외에도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을 참고.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 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17(1), 2016, 23-48면; 이한나, 「1980년대 가족법 개정 투쟁과 박완서의 소설: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8(4), 2017, 13-41면; 배상미,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서 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5), 2018, 73-117면;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기획’과 80년대 ‘워킹맘’의 경계: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no. 54, 2021, 46-76면; 정우경,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 나타난 돌봄 주체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63, 2021, 85-112면.

21) 당대의 여성주의 담론의 수용과 박완서 소설 창작의 영향 관계에 주목한 연구로는 이선미의 연구가 있다. 이선미는 “세계여성의 해를 맞아 여성과 관련된 각계의 논의들이 신문을 비롯한 미디어를 중심으로 ‘여성’ 담론을 만들어 나갈 때, 박완서 역시 ‘여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소설을 통해 이 담론화 과정에 개입(578면)하였다”고 보고, 그 예로 『휘청거리는 오후』를 들고 있다.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51), 2013, 571-612면 참고. 본고 역시 이선미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나,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라는 명제와 『서 있는 여자』 사이의 영향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 상상하고 주체적인 미래의 여자의 삶”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내 의식의 진부함과 내 주변 현실에서 마땅한 모델을 구할 수 없다는 난점 때문에”<sup>22)</sup> 쉽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힌다. 이는 『서 있는 여자』의 여성주인공이 시도한 “평등한 결혼” 실패에 대한 독자들의 비난을 의식한 말이다. 하지만 작가의 처음 의도대로 바람직한 상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꼭 “실패”로 단정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박완서의 소설에서 나타난 의도와 결과 사이의 불일치 혹은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아말로, 여성 해방이 단순히 이론을 통한 일시적인 각성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했다. 이에 본 연구는 박완서의 소설이 보부아르의 명제를 적극적으로 실험하는 서사를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을 살피고자 한다.

## 2. “제2의 성”이라는 명제와 과도기의 여성들

“제2의 성”은 보부아르의 주저라 할 수 있는 『제2의 성』(1949)의 핵심 명제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를 말한다. 보부아르는 이 책에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논박한다. 먼저 여성이 남성의 타자로 제2의 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또 다른 하나는 여성이 남성의 영원한 타자가 되어야만 하는 어떤 합당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여성의 본질이라고 믿어지는 특성들은 다만, 여성이라는 성에 대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에서 형성된 것일 뿐, 본질이 아니다. 여성이 남성의 타자로 존재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결국 억압된 여성성은 본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이고, 여성을 타자로 자리매김한 구조를 바꾼다면, 여성이 영원한 타자의 자리에서

22) 「작가의 말」, 『주부생활』, 1983.11월호, 445면. 연재 ‘마지막 회’에 실린 이 작가의 말은 널리 인용되곤 하는 1985년 학원사에 나온 단행본의 초판 ‘작가의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벗어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보부아르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온 “투기(投企)”라는 개념을 가져와 자기 스스로 가능성을 시험하듯, 여성이 영원한 타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3)</sup> 여성에 대한 권리가 제한적이었던 20세기 중반 프랑스 사회에서 『제2의 성』은 출간 직후 남성 지식인, 종교계 등의 거센 반발<sup>24)</sup>에 부딪혔으나, 이 책이 가진 영향력<sup>25)</sup>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에서 번역 출간된 이후 더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을 촉발한 기념비적인 텍스트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의 경우 일찍이 1950년대에 이미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 번역<sup>26)</sup> 되었으나, 이것은 완역이 아니었을뿐더러, 대중적으로 널리 읽힌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한국에서 보부아르에 대한 소개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

23) 보부아르는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여자’만이 유독 남자의 타자라는 불변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생물학적, 정신분석학적, 유희론적 견해 등을 살피지만 어떤 것도 여자가 타자여야 할 필연적 조건을 말해주지 않는다. “제2의 성”에 대한 보부아르의 주장은 다음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시몬 드 보부아르, 조홍식 역, 「서문」, 『제2의 성』, 을유문화사, 1993 참고.

24) 출간 이후의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고. 캐럴라인 무어헤드·시몬 드 보바르, 「『第二의性』以後」, 『世代』 제12권, 통권132호, 1974.7, 316-325면. 참고 『제2의 성』이 출간된 후 이십 여년이 지난 시점인 1970년대에 이루어진 영국 타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보부아르는 『제2의 성』 이후의 거센 논란, 미국에서 본 여성운동의 현주소 등에 대해 회고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5) 『제2의 성』 출간 이후 미국 페미니즘 운동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케이트 커크패트릭, 이세진 역, 『보부아르, 여성의 탄생』, 교양인, 2021, 411면, 320-327면. 『제2의 성』은 The Feminine Mystique(1963), Sexual Politics(1970), The Dialectic of Sex: The Case for Feminist Revolution(1970)등 제2물결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텍스트의 탄생에 영향을 끼쳤다. 이들 저작은 한국에서도 번역 소개 되었을 뿐 아니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1970년대에 번역 출간된 국역본 서지는 다음과 같다. 베티 프리단, 김행자 역, 『여성의 신비』, 평민사, 1978; 케이트 밀레트, 정의숙·조정호 역, 『성의 정치학』, 현대사상사, 1976; 슬라미스 파이어스톤, 김예숙 역, 『성의 변증법』, 풀빛, 1983.

26) 『제2의 성』의 한국에서의 번역, 출간, 수용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조혜란, 「『제2의 성 Le deuxiè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이용호의 1955년, 1964년 번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르와 계약결혼을 한 여류 작가”<sup>27)</sup>라는 수식과 함께 등장하거나 인상 비평이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 초 보부아르의 소설을 번역한 김인구 역시 보부아르에 대한 많은 소문과 역측을 의식한 듯, 역자의 말<sup>28)</sup>에서 보부아르가 “역센 투사형<sup>29)</sup>의 여류인사, 계약결혼을 시험한 비도덕적인 여성”으로만 소비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보부아르에 대한 흥미 위주의 기사는 1970년대에도 계속되었지만, 박지영<sup>30)</sup>이 지적했듯 유엔의 “세계여성의 해(1975년)”의 선정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에 대한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와 동시에 보부아르가 한국에서 호출되는 방식 역시 달라졌다. 보부아르는 ‘새로운 여성상’을 말하는 기사들에 자주 인용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1975년 『위기의 여자』 국역본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sup>31)</sup>가 되던

- 
- 27) 사르트르의 노벨문학상 거부 소식과 함께 보부아르와의 관계가 소개된 기사는 다음을 참고. 「프랑스의 知性(지성)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實存(실존)의 사랑」, 『조선일보』, 1964.11.26, 이후 두 사람의 ‘계약결혼’에 대한 자전적 산문인 보부아르의 ‘계약결혼’이 번역되었다. 『동아일보』, 1967.4.27
- 28) 시몬 드 보부아르, 김인구 역, 『아름다운 影像』, 을유문화사, 1973에 실린 역자의 말 참고. 이 문고판은 『위기의 여자』가 오증자의 번역으로 소개되기 바로 몇 해 전에, 출간되었으나 크게 화제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75년 출간된 『위기의 여자』의 히트 이후로 『아름다운 영상』 역시 오증자의 번역으로 이듬해 1976년에 다시 번역 출간된다. 오증자 역, 『危機의 여자』, 정우사, 1975; 오증자 역, 『아름다운 影像』, 정우사, 1976 참고.
- 29) 1956년 불문학자 김봉구의 글이 보부아르의 사상을 소개하는 기획기사로 연재된다. 한국에서 여전히 『제2의 성』이 완역이 되기 전이고 보부아르의 사상에 대해 알려진 바가 부족했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꽤 진취적인 기획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사에서도 역시 보부아르의 외모에 대한 비평은 빠지지 않는다. 그는 『제2의 성』을 “2천 면에 달하는 진서”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보부아르의 첫 인상에 대해서는 “팔자가 드센”, “여장부”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묘사한다. 김봉구의 이 기획 기사는 『女性(여성)의 自由(자유)와 能力(능력) (1)』을 시작으로 하여 총 5회에 걸쳐 연재된다. 경향신문, 1956.02.16.~02.22 참고.
- 30) 보부아르의 저작의 한국에서의 번역과 수용과 『위기의 여자』가 여성 담론 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박지영의 논문이 상세하다. 박지영, 『위기의 여자들: 보부아르 『위기의 여자』 번역과 1970년대 젠더/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9, 2016, 337-373면.
- 31) 『위기의 여자』의 베스트셀러 현상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창비에 실린 서평에서도 나타난다. 서평자는 “위기의 여자가 소개되기 전까지 보부아르란 여성은 우리 일반 독자들이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친근하게 접근해 본 인물이 아니었다”(693면)면서, 오증자의 번역 출간이 “우리나라의 독자, 특히 여성 독자들을 매료시켰던” 탓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면

서 그의 다른 소설은 물론이고 주저라 할 수 있는 『제2의 성』이 다시 번역 출간된 사정과는 관련이 있다.

1970년대 한국에서 새로운 여성상을 촉구하는 담론이 증가한 데에는 세계여성의 해(1975년) 선정이라는 사건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높아진 교육 수준도 한 몫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고학력 여성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여성들에 걸맞는 새로운 여성상<sup>32)</sup>이 필요해진 것이다. 관련 기사는 여성들이 대학교육을 받았음에도 “지적 행복”을 못 누리는 현실,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 지적<sup>33)</sup>한다. ‘새로운 여성상’을 말하는 기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흐름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목소리가 많으면서도, 한편, 기존의 ‘여성의 일’이라고 일컫어지는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 역시 지배적이다. 둘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막는 현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여성들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엘리트 여성”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사나 전문가의 인터뷰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여전히 출산, 양육, 가사 등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 너무 쉽게 폄하하고 있거니와, 스스로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사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상을 주장하는 기사들을 뒷받

---

서도, 위기의 여자에 대해 “너무 도식적”(698면)이라 평하는 한편, 역시 비슷한 해에 번역 소개된 『아름다운 影像』이 더 나은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은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의 등장인물인 모니끄라는 여성이 “철저하게 불품없이 다루”(698면)어지고 있어서라고 밝힌다. 이러한 서평을 보면, 『위기의 여자』의 인기에 대해 지식인층이 공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영자, 「여성의 인간화」, 『창작과 비평』 1977년 여름, 통권 44호, 693-698면 참고.

32) 실제로 신문에는 고학력 여성들의 품행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33)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성상의 모델은 1970년대의 산아제한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산아제한에 여성들의 협조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여성이 “육아”나 “살림”만을 해서는 “낭비”가 아니겠냐는 대한가족협회의 홍보부장의 인터뷰도 실린다. 『조선일보』, 1975.01.09

침하는 말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보부아르의 명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 있는 여자』는 바로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이중구속이 여전했던, 과도기를 살아가는 중산층 출신 대학 졸업 여성의 “평등한 결혼” 시도를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세대 여성으로 어머니 세대와는 다른 결혼관을 가진 캐릭터는 ‘연지’<sup>34)</sup>이다.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잡지사에서 일하는 스물 다섯의 여성 연지는, 어머니 세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매’ 결혼을 마다하고, 철민과 연애 결혼을 한다. 어머니 경숙 여사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신랑 측을 구실 삼아 ‘지체’가 맞지 않는 결혼이라며 탐탁지 않아 하지만, 연지는 “결혼은 두 성인 남녀의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개의치 않는다. 연지는 남편 철민에게 절대적인 ‘남녀평등’을 약속시키고,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살림을 해야 한다’는 통념도 거부한다. 그녀는 두 사람이 번갈아 대학원 공부를 하기로 약속하고, 우선 남편이 살림을 거들면서 공부를 할 동안 자신이 결혼 후에도 직장에 계속 나가면서 생활비를 책임지기로 한다.

그러나 “평등한 결혼” 계획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 소설이 발표된 이래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연지의 결혼의 ‘실패’는 그녀가 가진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이 모델을 제안한 연지 자신부터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연지가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가사일을 분담하기로 했음에도 그녀가 자꾸만 철민이 두른 앞치마를 불편하게 느끼는 것 등은 연지 자신의 철저히 하지 못함을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연지가 보이는 모순을 그녀의 불철저함의 근거로 단정 짓기보

34) 이선미는 『서 있는 여자』를 “197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의 문제를 새롭게 자각한 박완서의 변화가 반영된 작품”(467면)이라고 지적한다. 이선미, 「작품해설: 서 있기를 ‘선택’하는 여자의 절망과 용기」, 『서 있는 여자』, 세계사, 2012 참고. 본고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서 있는 여자』의 연지라는 캐릭터에 주목한다.

다는 『서 있는 여자』가 그리고 있는 시대가 여성에 대한 모순된 요구가 쏟아지던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이 1982년에 연재 되었으니, 스물다섯 살의 연지는 50년대 후반에 태어나 70년대 후반에 대학생활을 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사회학자 조은은 1970년대를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는 대중적으로 대학 교육 세례를 받은 첫 세대나 마찬가지여서 대졸 여성에 대한 사회의 모순적 잣대와 요구에 갈팡질팡하고 있었다”<sup>35)</sup>라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시집”기는 데 활용되고 비판<sup>36)</sup>되지만, 대졸 여성의 일자리는 없었고, 결혼을 하면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완서는 다른 작품에서도 대학 나온 여성들이 겪는 모순된 현실을 자주 등장시켰는데, 장편 『휘청거리는 오후』(1976년 『동아일보』 연재)의 세 딸들도 역시 모두 대학 나온 여성들이지만, 그녀들은 결혼 시장에서 ‘신붓감’으로 다시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서 있는 여자』의 연지 역시 과도기를 살아가는 여성으로, 어렵게 취업에는 성공했으나, 그녀의 일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야박하기만 하다. 어머니 경숙 여사가 딸의 결혼에 대해 간섭하고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평가와 관련이 있다. 딸 연지는 학창 시절 내내 우등생이었고, 대학을 졸업해서는 2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이름있는 교양지 여기자가 되었

35) 조은, 「문학 텍스트 밖에서 박완서 읽기」, 『문학동네』 2021년 봄호 통권 106호, 122-135면. “여기서 지목한 ‘우리’는 1965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 1969년에 졸업한 동기들이지만 ‘산업화 세대면서 교직을 뺀 거의 모든 직장에서 결혼하면 퇴직해야 했던 ‘결혼 퇴직’ 세대, 그리고 버티 봐야 임신 또는 출산을 하면 퇴직해야 했던 ‘출산 퇴직’ 세대를 포괄’한다고 서술한다.

36) 1970년대 초반부터 일간지에는 ‘대졸 여성’의 진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자주 등장한다. 졸업장이 결혼을 위한 ‘패스포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대졸 30대 주부의 능력이 사장’되고 있다는 비판 기사가 등장한다. 또한 1975년 ‘여성의 해’에는 대졸 여성이 대부분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이대 사범대학장 안인희 교수의 “여성 교육 무용론”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을 단 글이 화제가 되기도 한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 대졸 30대 주부 능력 사장(死藏), 『조선일보』, 1976.09.30.; 「사명감을 갖도록: 여성교육 그 방향 문제점」, 『매일경제』, 1972.02.25.; 「시집 잘가기 위해 대학에 간다 이대 안인희 교수 “여성교육 무용론”」, 『매일경제』, 1975.02.14

다. 하지만, 누구도 연지의 성취에 대해 진지하게 봐주지 않는다. 중매 시장에서 ‘여기자’라는 직업 여성은 “대학 졸업하고 고이 집에 들어앉아 있는 규수보다”<sup>37)</sup> 못한 평가를 받는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 어머니 경숙은 낭패감을 느낀다. 연지가 평등한 관계를 말하면서도 내적 모순과 갈등에 시달리는 것 역시 바로 이런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까지 나와서 살림밖에”라는 비난과 막상 사회에 나가 일을 하려고 해도 여성의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중구속 속에 연지라는 여성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어머니의 ‘이혼 순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연지가 ‘여성의 현실’을 목격하는 부분이다. 연지는 좀처럼 여성 인물을 다루지 않는 ‘교양지’의 관행을 깨고 겨우 “여류 인사”를 ‘인물탐방’의 게스트로 초대하는데 성공하지만, 더 지난한 싸움이 연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가 취재한 여권운동가는 기대와 달리 “알맹이 없이 겉치레만 요란”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이 순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콤플렉스를 느끼고 ‘일과 가정’ 모두를 성공적으로 이끈 ‘여권 운동가’로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한다.

기대에 못미치는 인터뷰 대상에 대한 연지의 반응은 단순히 취재 대상이 기대와 달랐을 때 느끼는 기자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넘치는 부분이 있다. 그녀는 이 일을 단순히 ‘기사 한 꼭지의 실패’가 아닌, “여자에 대해 가진 평소 신념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자란 여자로 태어나는 걸까? 여자로 만들어지는 걸까? 연지는 단연 여자로 만들어 진다의 편이었다. 지금까지의 이런 생각조차 흔들리고 있었다.”(184면) 이렇게 연지는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라는 명제를 회의하듯 다시 곱씹고 결국 “인터뷰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창작을 하는”(185면) 선택에 이른다. 그녀에게 있어 “여류 인사”를 취재하는 것이 단순히 기사 한 꼭지를 맡는 차원을 넘어 여성 해방에 대한 평소 신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긴

37) 박완서, 『서 있는 여자』, 세계사, 2012, 33-34면. 앞으로 이 논문에서 『서 있는 여자』를 인용할 때는 본문에 해당 면의 번호만 표기한다.

일이다. 상황이 이래도 연지는 고민을 함께 나눌 동료도 없고, 편견이 가득한 직장 내에서 여성 해방의 정당성을 입증해 내야 한다.

연지의 일과 결혼이 모두 쉽지 않을 때, 기혼 여성 공채를 한 기업에 대해 취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연지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취는 요원하다. 기혼 여성 사원 공개 채용에 합격한 여성을 취재하지만, 그 자리에서 연지가 확인한 것은 기혼 여성의 일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다. 기혼 여성 전형은 업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어떤 시험도 없이 면접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우선시된 것은 “그녀들이 얼마나 안정된 가정의 기혼 여성 이냐”라는 것이다. 소위 “팔자 사나운 여자들”(296면)은 피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만 골라 뽑았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실제로 연지가 만난 ‘기혼 여성 사원 전형 합격생’도 남편이 대학교수이고, 친정 어머니가 남편을 돌봐주기로 한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의 여성이었다. 기혼 여성 채용이 기업 홍보용 요식행위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은 여성의 일과 직업이 사회에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연지가 목격한 상황은 여성 해방이 전통적인 ‘부덕(婦德)<sup>38)</sup>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한에서만 허락된 조건부의 것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연지가 신념으로 삼고 있는 ‘여성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공한 보부아르 역시 부딪혔던 문제로 그녀 역시 『제2의 성』 출간 이후 줄곧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관념, 가족 제도 등을 위협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38) 이선미가 언급했듯이 “많은 것들이 변화한 근대적 사회구조 속에서도 결혼이라는 제도는 가장 완고하게 과거의 전통을 고수한 채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권장해야 할 ‘미풍양속’ ‘부덕(婦德)’의 실천 요강”은 여전하다. 이선미, 「작품해설: 서 있기를 ‘선택’하는 여자의 절망과 용기」, 『서 있는 여자』, 세계사, 2012, 470면.

### 3. 만들어진 여성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험

『서 있는 여자』에 등장하는 “평등한 결혼” 모델은 당시 여성 해방 운동에서 제기된 인식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지는 기존의 결혼 모델이 여성을 가정에서 소외시키고, 주체성을 빼앗는 것이라 보았는데 여기에는 그녀가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어머니의 삶이 중요한 이유로 작동한다. 연지는 고3 때 목격한 어머니의 “굴욕” 장면을 잊지 못한다. 새벽 공부를 하다가 목격했다는 장면은, 육감적인 몸매를 드러낸 얇은 가운 차림의 어머니가 오들오들 떨면서 서재 문 밖에서 남편에게 애원하다시피 잘못을 빌고 있는 모습이다. 그날 끝내 굳게 닫힌 서재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식은땀을 흘리는 어머니를 침실로 데려간 것은 딸 연지였다. 다음날에도 새벽에 목격한 일의 내막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으나, 딸 연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녀는 남들이 말하는 “팔자 좋은 여자”의 삶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세간의 눈에 어머니 경숙 여사는 하석태 교수의 아내로,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날의 “굴욕” 장면은 그 말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그 날’ 이후 연지는 껌데기뿐인 “팔자 좋은 여자”의 삶이 아니라, “평등한 결혼” 생활의 주체를 꿈꾸기 시작한다.

이는 어머니의 불행의 원인을 “팔자”라는 운명의 속박에 여성을 가두는 결혼 제도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현실 파악은 여성의 타자성을 본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본 『제2의 성』의 핵심적 주장을 공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변의 타자성을 거부한 보부아르의 인식은 “성과 젠더의 개념적 구분”<sup>39)</sup>을 촉진시켰고 이로써 여성의 억압과 소외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여성’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연대”<sup>40)</sup>하

39) 박미선, 「젠더」, 『여/성이론』(1), 도서출판 여이연, 1999.4, 318면.

40) 제2물결 페미니즘의 확산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김보명, 「미국 제2물결 페미니즘에 대한 역사적 평가들에 대한 소고」, 『서양사론』 138권, 한국서양사학회, 2018, 11-37면을 참고. 김보

기 시작한 것이다. 연지의 “평등한 결혼”은 바로 동시대 여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존의 제도를 문제로 인식한 것이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제도의 창조였다.

또한, 연지가 생각하는 “평등한 결혼” 모델은 당대의 이상으로 여겨지던 중산층<sup>41)</sup>의 결혼 세대나 핵가족 모델<sup>42)</sup>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97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하여 중산층의 결혼 풍속도를 그린 『휘청거리는 오후』와 비교하면 분명하다. 이 경우 세 딸들이 모두 아버지의 재력에 의존하여 ‘지체’있는 집안의 자제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서 있는 여자』 연지에게 있어 결혼은 부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두 남녀의 결합이다. 이러한 연지의 주장은 여성주의 이론과 담론의 세례를 받은 신세대 여성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핵가족 모델에서는 이상적인 ‘가정 여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서구의 중산층 계급의 형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다. 19세기 영국에서 활발하게 창작된 가정소설의 역사를 통해 근대적 주체를 탐구한 『소설의 정치

---

명은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을 고찰한 논문에서 제2물결 페미니즘이 “여성학 교육의 확산 및 여성사의 성장”(22면)과 함께 확산되었으며 “여성이 ‘여성’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23면)을 발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41) 박완서 소설에 등장하는 “중산층 가정의 욕망”에 대해서는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국어국문학』 no.164, 2013, 489-518면을 참고. 이 논문은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를 중심으로 중산층을 선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욕망을 만들어가고 그들의 존재방식을 구축해 가는가를 살펴’(494면)본 연구로 중산층 욕망의 기저에 있는 “불안”의식을 지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42) 오자은은 박완서의 “여성해방소설” 중의 하나인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분석한 논문에서 당대의 핵가족 모델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진 ‘가정주부’에게 기대된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대 한국 사회에서 핵가족 모델이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상’으로 작동했음을 지적한다. “4인의 중산층 핵가족이 이상적으로 여겨지긴 했지만, 그것은 ‘이상’인 만큼 실제로는 너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62면)했다는 것이다.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기획’과 80년대 ‘워킹맘’의 경계: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no.54, 2021, 46-76면 참고.



사』<sup>43)</sup>의 저자 낸시 암스트롱에 따르면 중산층의 형성에는 ‘가정 여성’이라는 모델이 있었다. 이때 가정 여성은 임금 노동을 하지는 않으나, 가정의 살림에 관계된 온갖 업무를 도맡아서 한다. 이 가정 여성은 “표면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상류층 여성, 육체 노동을 하는 하층계급의 여성과도 구분되는데, 이들 가정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지혜롭고 온화한 성품이며, 이러한 중산층 가족 모델하에서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된다.

1970년대 한국에서도 가정 여성 모델이 중요하게 등장했다. 『서 있는 여자』가 연재된 『주부생활』<sup>44)</sup> 역시 전업주부인 가정 여성이 보는 잡지로, 이러한 여성지에는 유명인에 대한 자극적인 스캔들 기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가정 여성이라면 갖추어야 할 ‘부덕(婦德)’의 다양한 자질들을 소개한다는 점에 있다. 박완서가 소설을 연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 도시락 반찬 만드는 법’, ‘부부생활 테크닉’, ‘아들 낳는 법’, ‘화장법’, ‘계절에 맞게 옷 고르는 법’ 등등 다양한 기사가 소개된다. 이들 여성 잡지는 남성이 벌어들인 일정한 수입을 가정 여성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의 생산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잡지가 말하는 가정 여성의 다양한 자질에 대해 『서 있는 여자』의 연지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연지가 가정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임금노동<sup>45)</sup>을 계속하겠다고 선

43) 낸시 암스트롱, 오봉희·이명호 역, 「2장 가정여성의 등장」, 『소설의 정치사』, 그린비, 2020, 121-194면 참고.

44) 장미경에 따르면, 『주부생활』(1965년 창간)은 “『여원』(1955년 창간)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 핵가족과 주부의 지위와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잡지”(146면)로 “일체 식민지 통치하의 여성지에 비하면, ‘계몽성’과 ‘혁명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대신 평론의 기능, 생활 정보의 기능, 오락의 기능이 강화된 특징”(146면)이 있다. 산업화 시기 중산층의 형성과 가정 주부의 탄생 그리고, 잡지 『주부생활』의 특징에 대해서는 장미경의 논의를 참고.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 no. 1, 2007, 142-182면.

언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철민에게 먼저 공부를 하라고 양보하고 연지가 생계를 책임지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해석도 제기되었으나.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연지의 “양보”는 홀로서기를 위한 첫걸음<sup>46)</sup>이었을 수 있다. 연지의 어머니 경숙 여사의 경우만 봐도 ‘경제권’을 놓쳤을 때 생기는 해악이 크다. 두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것은 경숙 여사가 일을 그만둔 이후부터이기도 한데, 일을 그만 둔 그녀가 오히려 가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경험하는 반면, 하석태 씨는 학문적 성취를 거두는 등 사회에서 이름을 얻는다. 그녀는 이혼 위기에 몰리자, 자신에게는 ‘하석태의 아내’<sup>47)</sup>라는 이름 외에 어떤 사회적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슬퍼하는데 경숙이 연지네가 단란한 중산층 가정으로 부상하는 데 한 역할을 고려한다면 몹시 이상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경숙네 가족이 중산층 계급으로 올라선 데에는 경숙의 기여가 상당히 보이지만, 오히려 그녀가 번 돈은 부정직한 것처럼 취급되거나, 혹은 부차적인 것으로 가려진다.

이렇게 중산층 계급의 핵가족 모델을 거부하는 연지의 모습은, 당시 한

45) 『서 있는 여자』의 연지의 일이 갖는 함의에 주목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배상미는 이 논문에서 연지가 “부부간의 가사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이슈에만 집중하여 섹슈얼리티의 불평등한 노동 분할을 간과”(86면)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 논의는 『서 있는 여자』를 논할 때 좀처럼 거론되지 않았던 ‘섹슈얼리티’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상미,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서 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5), 2018, 73-117면.

46) 김문정 역시 연지의 양보가 “젠더 위계에 따른 희생적 차원의 행위로만 해석”되기보다는, “가정 내 무급 노동자로 머무는 것”을 연지 나름대로 피하려 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연지의 선택을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가는 주체적 선택의 일환’으로 본다. 김문정, 「서 있는 여자에 나타난 계약으로서의 결혼과 ‘여성적 글쓰기」, 『한국문학연구』 60, 2019, 245면

47) “경숙은 만약 자기가 하석태 교수 부인의 자격을 포기하고 김경숙이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상상해 보았다. 서울역 광장에 오도카니 선 가솔소녀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냉혹한 경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다. 이혼해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을 자신 때문에 하석태 교수 부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생각하려 들지 않았던 자신의 경솔이 한심했다.”(463면)

국에도 소개되고 화제가 된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결혼관과도 닮아 있다. 보부아르는 20세기 초 프랑스의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즈음 그녀가 십대가 되었을 시기에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게 된다. 이는 보부아르 가문의 두 딸들(시몬 보부아르와 그녀의 여동생 엘렌 보부아르)이 ‘지참금’이 없어 상류층과 결혼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세기 초 프랑스에서의 부르주아 출신 여성으로써는 드물게 ‘직업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부모들에게 있어 이는 ‘몰락’으로 받아들여지나, 정작 딸인 보부아르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 보부아르는 일찌감치 그녀에게 강요된 ‘부덕’을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교육은 받되 ‘너무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그 시대 여성들에 대한 교육관에 거부감<sup>48)</sup>을 가지고 있었다. 『서 있는 여자』의 연지가 그랬던 것처럼 보부아르 역시 아버지의 서재를 동경했고, 공상하기를 즐겼다. 그리고 다짐하기를 ‘반복된 가사일’과 출산과 양육이라는 ‘의무’에 종속된 가정 여성의 운명을 거부하고, 초월하는 삶을 꿈꿨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실용적인 지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탐구하는 지식인의 삶 자체로, 그녀는 “일생을 지적인 일에 바칠 작정이었다.”<sup>49)</sup>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이 되는 기존의 결혼 관계에 속박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상 실현을 위해 다른 남녀관계를 꿈꾸는데, 무엇보다도 서로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평등한 관계<sup>50)</sup>가 되어야 했다. 그녀가 스물 한 살에 파리 고등사범 학교에서 만난 사르트르와 계약결혼 관계를 맺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48) 보부아르는 1913년 가톨릭계 명문 사립인 데지르 학교에 입학하지만, “미래의 좋은 신부감을 양성”하는 교육에 금방 실증을 느끼고 만다. 데어드르 베어, 『시몬 드 보부아르』, 웅진문화, 1991.

49) 시몬 드 보부아르, 이해운 역, 『처녀시절·여자 한 창 때』, 동서문화사, 2010, 149면

50) 시몬 드 보부아르, 위의 책, 149-155면

박완서가 참여했던 『여성문학』 창간호에는 “사르트르가 보부아르에게 보낸 편지”<sup>51)</sup>의 발췌 번역이 실려 있다. 두 연인 사이에 오간 이 편지는 작업중인 원고나 읽을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상의하는 게 인상적이다. 『서 있는 여자』의 연지가 평등한 부부생활을 꿈꾼 데에는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편지가 상징<sup>52)</sup>하는 지적이고 평등한 관계 역시 자극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두 철학자 간에 맺어진 계약결혼에 대한 참조는 ‘학구적인 것’에 대한 선호로 거듭 강조되는데, 경숙 여사와 남편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이 ‘학구적인 것’이라는 점도 그러하며, 연지가 남편과 가사일을 분담하고 번갈아가면서 생계비를 벌기로 분담한 데에도 역시 대학원 공부라는 목표가 있었다는 점 역시 ‘학구적인 것’이 지닌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대학원 공부는 단순히 직업적인 연구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말초적 감각이나 육체적 욕망에 지배되는 생활에 대한 거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 4. 육체의 “취약성”

“평등한 결혼”으로 규범적 여성성을 넘어서려고 한 연지의 시도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는 위에서 말한 ‘학구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말초적 감각이나 육체적 욕망을 극복의 대상으로 놓을 때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평등한 결혼” 계획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거듭 등장하는 고3 때 목격

51) 시몬느 드 보바르·장 폴 사르트르, 전체론 역, 『나의 사랑하는 가스또르에게: 사르트르가 시몬느 보바르에게 보낸 편지』, 『여성문학』 창간호, 전예원, 1984, 357-399면.

52) 보부아르와 사르트르 두 사람의 이미지 중 지배적인 것 중 하나는 “숙제를 하는 어린이처럼 다른 방에서 일을 하고 있”(케렐라인 무허헤드, 위의 기사, 321면)는 이미지다. 다소 이상화된 이미지라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으나, 두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원고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 등의 사진이 자주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진은 당대의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한 ‘원장면’은 그녀의 결혼 계획을 탄생시킨 중요한 계기로 제시되지만, 동시에 “평등한 결혼”을 꿈꾸는 여성이 지닌 ‘여성의 육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장면은 모두 네 번<sup>53)</sup> 다시 등장하는데, 연지가 회사 일과 결혼 생활을 양립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실감한 약혼식 직후를 시작으로 하여, 직장에서 기혼 여성에 대한 편견에 기분이 상한 와중에 가출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임신 중절을 빌미로 남편 철민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을 때이다.

이 회상 장면에서 강조되는 이미지 중 하나는 “얇은 가운데 비친” 어머니의 “전라”인데, 어머니의 육체가 이렇게 자극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반면, 아버지 육체의 물질성<sup>54)</sup>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서재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커피 포트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통해서 그 존재가 상상될 뿐이다. 서재 안의 아버지는 혼자 있되, “충만”(85면)한 상태로, ‘풍만한’ 어머니의 육체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그날 이후 연지는 “나도 아버지처럼 살게 하소서. 어머니처럼 살게 될진대 차라리 죽게 하옵소서”(85면)라고 빌기 시작했다.

남성(아버지)을 롤모델로 한 연지의 선택은 다시 말해 육체가 아니라

53) 박완서, 『서 있는 여자』, 세계사, 2012, 82-84면, 195면, 254면, 403면

54) 여성의 육체가 부각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설명할 때에도 적용된다. 여성의 육체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우울증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우울증을 연구한 하미나는 “남성의 질환을 설명할 때”는 육체 바깥 사회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과 달리 “유독 여성의 질환 설명에만 “생물학적 원인”이 언급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하미나가 주장했듯이 이러한 설명 방식은 여성의 육체를 “질병” 혹은 “갈등”의 원인으로 놓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미나의 연구는 여성 우울증의 원인이 생물학적인 것으로 설명된다는 점을 지적한 대목이지만, 여성의 육체의 부정성이 어떤 식으로 생산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적이란 생각이 든다. 여성의 육체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여성의 우울증의 원인을 육체에서 찾는 경향에 대해서는 하미나,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동아사이아, 2021, 24-26면을 참고. 서 있는 여자에서도 여성의 육체는 아버지와 달리 거듭 부각된다. 경숙 여사가 이혼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혼순례를 할 때도, 중년 여성들의 육체가 강조되고 있다.

정신의 추구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업주부가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는 생활이다. 이 모델은 애초에 한계도 분명한데,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것을 거부할 것인지, 적어도 양육을 남편과 함께 할 것인지조차의 계획도 없다. 그저 신혼 초부터 자녀를 낳을 계획은 없다는 정도에서 그친다. 그리고 육체적 욕구나 욕망에 대해서도 역시 괘호쳐져 있는 상태다.

여기서, 연지에게서 보이는 육체에 대한 거부감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연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이것이 그녀만 가진 ‘결벽증’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어머니의 육체에 대한 거부감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대상이 되는 중산층 핵가족 모델에서 생산된 구조적인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연지가 아버지의 서재를 선망하고 어머니의 육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적 가족의 전형적인 증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강제적 이성애를 기초로 한 근대적 핵가족을 비판한 게일 루빈이 지적했듯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최우선 권리를” 가지고, 가정 내에서는 “노동의 성별 분업(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불평등)”<sup>55)</sup>이 강고할 때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증상은 보부아르에게서도 보여진다. 보부아르가 태어난 20세기 초 프랑스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법적 권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기혼 여성은 1938년까지 법적으로 무능해 신분증과 여권을 소지할 수 없었으며, 배우자의 허가 없이 대학에 등록할 수 없었다. 1943년에야 배우자의 허가 없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고 여성 참정권은 1944년에나 허용되었다. 낙태죄는 사형에 처했다(프랑스에서 낙태죄는 1975년에 폐지되었다).”<sup>56)</sup> 여성에 대한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시대의 부르주아 중산층 핵가족 모델에서 여성은 늘 남성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5) 게일 루빈, 신혜수 외 역, 『여성 거래』, 『일탈』, 현실문화, 2015, 134면.

56) 이정순, 「웁긴이 서문」, 『제2의 성』, 을유문화사, 2021, 8면.

때문에 보부아르는 ‘남녀동등’을 위해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의식이 아닌 결혼제도, 교육제도 등 사회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1970년대에는 직접 여성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

“나는 결혼이 남성이나 여성에게 다 같이 서로의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결혼은 좌절과 상호 혐오감에 빠진 부모들이 그들의 불만을 자식들에게 발산함으로써 해서 어린이들에게도 안심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가족생활이 최선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사람이, 여러 마음의 빛깔을 지닌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하지요. 당신은 가족이라는 질식할 듯한 감방에서 어린이를 끌어내야 합니다.”<sup>57)</sup>

여기서 보부아르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찌감치 하는데 유치원 같은 육아 돌봄 시설<sup>58)</sup>이 아직은 일반적이지 않았던 당대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기도 하다. 보부아르 역시 불평등한 부부관계의 폐해를 목격한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그럼에도 당대의 교육은 여자 아이가 자라 ‘가정 여성’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길만을 가르쳤다. 이러한 상황이 보부아르가 소위 ‘여성의 운명’<sup>59)</sup>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거부감을 느끼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유년기의 보부아르는 스스로를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딸로 정체화하고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녀가 여동생보다 ‘똑똑한’ 딸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

57) 케릴라인 무어헤드·시몬 드 보바르, 『『第二의性』以後, 『世代』 제12권, 통권132호, 1974.7, 320-323면.

58) 박완서 역시 육아를 위탁하는 시설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1980년대에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박완서, 『서 있는 여자의 갈등』,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수』, 문학동네, 2015 참고.

59) 보부아르는 데자르 학교 시절 그녀의 절친이었던 여자 친구 자자가 ‘어머니가 되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

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자, 보부아르는 자신이 ‘여자’라는 자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된다.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여자들의 몸을 “육체의 결합”으로 표현하고, 이제껏 “하나의 순수한 정신체”로 인정받았던 자신이 단순히 “생물체”로 전락해버렸다고 생각<sup>60)</sup>하면서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다. 연지가 어머니의 ‘굴욕’ 사건을 보고 정신과 육체를 이분화하고, 정신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세계를 선망했던 것처럼, 보부아르에게서도 은연중에 정신과 육체라는 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보부아르나 『서 있는 여자』의 연지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을 선망한 것,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서재를 선택했던 것에는 이러한 맥락이 있다.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결혼 관계를 보면서,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선망하는 것으로 불평등한 위치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보부아르가 아버지에게 실망했던 것처럼, 연지의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는 실패한 동일시이고,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은 철민과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러서이다.

또한 몸에 대한 연지의 태도가 보이는 난점은 『제2의 성』의 서술상의 난점과도 관련이 있다. 보부아르의 『제2의 성』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여성의 몸이 경험하는 임신, 출산에 대한 서술로, 이것들이 극복해야 할 것처럼 서술될 때가 있다. 이러한 서술은 『서 있는 여자』의 연지가 여성의 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보부아르는 여성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으면서, 여성이 가진 몸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오했던 것일까.

이는 제인 프리드먼<sup>61)</sup>이 지적했듯이 보부아르가 불변의 타자성을 비판하면서 생물학이 여성성이라는 젠더의 근거가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60) 시몬 드 보부아르, 위의 책, 108-109면

61) 제인 프리드먼, 이박혜경 역, 「1장 평등인가 차이인가, 『페미니즘』, 이후, 2002, 29-56면 참고.



지 생물학 자체가 없다는 말은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제2의 성』의 “여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테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의 근거로 생물학이 등장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했을 뿐, 생물학으로서의 성(sex)은 여전히 괄호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여전히 여성의 육체가 초래하는 명백한 문제들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지점 때문에 주디스 버틀러<sup>62)</sup>를 비롯한 후대의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성(sex)/젠더 이분법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강초롱<sup>63)</sup>은 육체에 대한 보부아르의 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실에 대한 기술과 현상에 대한 비판적 기술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는 보부아르의 글쓰기 스타일이 오해의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제2의 성』을 집필하면서 보부아르는 수많은 참고자료들을 가지고 오지만, 인용과 작가의 서술 사이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보부아르의 “육체에 대한 모든 논의가 궁극적으로는 애매성의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윤리적 실존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sup>64)</sup>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긴 일일 수 있다. 여기서 ‘애매성’이란, ‘의식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sup>65)</sup>이라는 뜻으로, 하나의 주체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다른 타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 된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면 보부아르의 사상에는 이미 “육체”에 대한 후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넘어설 아이디어를 지니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 있는 여자』에서 “평등한 결혼”이 좌초하는 서사가 등장하는 것이 보부아르의 원래 의도나 그의 철학에서

62)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98-108면 참고.

63) 보부아르의 ‘육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강초롱, 「시몬 드 보부아르의 육체에 대한 윤리적 성찰: 『제2의 성』을 향한 비판에 대한 재고찰」, 『불어불문학연구』 102, 2015, 5-42면.

64) 강초롱, 위의 논문, 29면.

65) 강초롱, 위의 논문, 같은 면.

‘육체’가 함의하는 바를 한국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서 생긴 한계로 규정하고 논의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평등한 결혼” 계획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데에서 좌초하게 됨으로써 무엇을 볼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 있는 여자』는 ‘만들어진 여성성’에 대한 각성만으로는 불충분한 지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지가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게 되는 서사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결혼 직후 그녀는 뜻하지 않은 임신과 중절 수술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통증과 하혈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이다. 뿐만 아니라 작가는 여성의 몸이 전문적인 의료 권력을 만날 때,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도 빠뜨리지 않는다. 연지는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산부인과 진료대와 여성 환자의 고통에 대해 둔감한 의료진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낀다. 거기다, 여전히 ‘부덕’을 강요하는 남편, 여자 ‘팔자’를 운운하는 아버지는 연지가 겪는 경험에 무지할 뿐 아니라 그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연지의 남편 철민은 연지가 중절 수술을 한 것에 대해 낯지도 않은 아이의 성별을 아들이라고 확정하고 친권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이 장면은 여성의 몸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고통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자연으로서의 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축소할 수 없으며 그녀의 몸 자체가 이미 젠더화된 몸으로 이미 세상의 규범에 의해 해석된 몸이라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몸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다른 관계들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에서 주디스 버틀러가 말한 육체의 “취약성”<sup>66)</sup>이라는 문제가 가시화 된다. 여기서 ‘취약성’은 그녀의 몸이 단순히 부서지기 쉬운 ‘열등한’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맥락과 관계

66) 육체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는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55-59면을 참고.

속에 의존하면서 만들어진 몸이기에 단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지의 경우, ‘부덕’을 강요하는 남편 철민은 물론이고, 여성인 어머니 등 여러 다른 몸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지가 자신의 동일시가 실패한 동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부정했던 여성의 몸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진다. 이제, 연지는 아버지의 서재에 자기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머니를 연민하고, 여성이 처한 현실의 모순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 5. “제2의 성”이라는 명제의 서사화와 그 의미

“평등한 결혼” 실험은 연지의 이혼으로 끝이 난다. 이혼을 반대했던 시 부모들은 연지의 중절 수술을 ‘부덕’의 위반으로 해석하고, 이혼을 ‘허락’한다. 이러한 결말은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만 단정할 수 없는 지점 역시 충분히 보여준다. 그녀를 억압했던 ‘부덕’이 ‘자유’를 선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그녀는 ‘자기만의 방’을 얻는다. 그녀는 “결혼에 실패한 여자”(406면)이라는 꼬리표를 얻었지만, ‘내 일’에 대한 ‘갈망’이라는 비밀을 유지한 채로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

연지의 글쓰기가 그렇듯 여성의 글쓰기는 당대의 풍속과 규범의 위반이라는 대가가 따르거나, 혹은 그것을 시도한다. 보부아르의 글쓰기 역시 그랬다. 그녀 역시 “프랑스 남성을 웃음거리로 만든 여자”라는 꼬리표를 얻었다. 박완서 또한 한 산문에서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제까지 누구보다 미풍양속을 잘 따르며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해 보고 싶다”<sup>67)</sup>고 말한다.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글쓰기, 이는 이제까

67) “나는 걸보기에 한국적인 미풍양속을 가장 잘 지키면서 살아온 편이다”, “그렇지만 너무도 오래 한국적인 부덕, 미풍양속과 씨름하고 회의하고 증오하고 정들이고 살아왔기에 감히 그 신성한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완서, 「자유인에 대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

지 ‘관습적으로 굳어진’, ‘인정 규범’에 ‘동화’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sup>68)</sup>가 되고자 하는 글쓰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지의 ‘자기만의 방’은 남성들의 공간과도 차이가 있다. 그녀의 아파트는 ‘실학’을 전공하는 교수 아버지의 서재, 즉 생활과 학구적인 것 사이를 가로 막아주는 육중한 문이 달린 서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연지의 작업실은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 쓰는 밥상<sup>69)</sup> 위에 타자기를 놓고 글<sup>70)</sup>을 쓰는 공간이다. 또한 연지가 쓰는 글이 아버지의 것과 다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자족적인 쓰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녀의 읽고 쓰기는 동료와 함께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완서의 글쓰기가 그랬던 것처럼, 연지에게도 함께 글을 쓰고 읽어줄 동료가 필요할 것이다. 연재를 끝내면서 박완서가 남긴 당부는 미래의 독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나는 연지의 삶이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독자에 의해 그녀는 다시 행복해질 수도 있으리라. 결국 내가 그린 여자는 미래의 여자가 아니라 과도기의 여자라고도 볼 수 있겠다. 상처받는 건 과도기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닐까.”<sup>71)</sup>

작가의 말대로 연지는 이미 완성된 해방의 날 이후의 여자가 아니라,

는 것들』, 문학동네, 2005, 105면.

68) ‘인정’에 대한 논의는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1장 「나 자신을 잃고」, 『젠더 허물기』, 문학과 지성사, 2015를 참고.

69) 부엌 식탁을 책상 삼아 글을 쓰는 연지의 모습은 제대로 된 작업실이 없는 여성 작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몇 해 전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2019)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등장했다. 이 영화에서도 여성은 부엌 식탁을 작업대 삼아 쓴 글을 쓰고 그렇게 완성된 글이 실린 잡지를 받는다.

70) 김문정은 “연지의 글쓰기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점진적인 방법이나마 여성의 자리를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평하고, 박완서 작가가 『여성문학』, 『또 하나의 문화』 등의 무크지 활동을 했던 것에도 겹쳐진다고 보고 있다. 김문정, 위의 논문, 248면.

71) 「작가의 말」, 『주부생활』, 1983.11월호, 445면.

해방을 위해 기꺼이 일어난 여자이다. 그러니까 연지의 실험이 순탄치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실패’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도기의 여성의 시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독자에 의해 그녀는 다시 행복해질 수도 있으리라”라는 기대는 연지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다른 독자들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서 있는 여자』의 연지는 고독했다. 역할 모델이 되어 줄 만한 여자 선배를 만나지도 못했고, 오히려 어렵게 취재한 ‘여권 인사’는 그의 흠결을 연지가 덮어줘야 할 정도였다. 잡지 편집실에 연지 외에 여성 동료가 한 명 더 있었지만, 연지는 그녀와 연대하기 어려웠다. 연지가 보기에 그녀는 당대 사회가 원하는 여성에 대한 규범에 충실해 보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연지의 시도가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해선 더 많은 독자가 그녀의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힘을 보태주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신세대 여성 연지의 “평등한 결혼” 선언이 나온 1980년대가 대중 여성에 대한 모순된 요구가 집중되었던 과도기였다는 데 주목하고, 『서 있는 여자』가 당대에 유력한 페미니즘 명제를 적극적으로 서사 실험함으로써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넘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고자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지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2장에서는 대학 나온 중산층 여성들에게 모순된 요구가 쏟아지던 과도기의 이야기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 소설이 『주부생활』에 연재될 때는 근대적 대학 교육을 받은 신세대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여성 담론이 요구되던 시대였다. 또한 한국에서 여성학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전 다양한 여성문학실천들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중산층 출신 대졸 여성 연지라는 인물이 “평등한 결혼” 모델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모델은 여성의 운명 (“팔자 좋은 여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역할을 구조의 문제로 본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의 핵심 아이디어와 공명하는 대목이 있다. 3장에서는 ‘제2의 성’이라는 명제가 『서 있는 여자』의 서사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폈다. 이를 위해 보부아르의 자전 소설 등을 활용하였고, 연지의 “평등한 결혼”이 중산층 핵가족 중심의 가족 모델을 비판하는 함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계약결혼이라는 개인적인 실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여성에 대한 제도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20세기 초에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와의 계약결혼으로 전통적인 가정 여성 모델을 거부했다. 4장에서는 평등한 부부 관계의 걸림돌이 된 육체의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여성의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서 있는 여자』나 보부아르의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성 인물이 지닌 한계로 단정되었으나, 본고는 이를 단순히 비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노동의 성별 분업이라는 핵가족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육체의 “취약성”이라는 문제가 “평등한 결혼” 모델을 좌초하게 하는 서사를 통해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 제기한 ‘만들어진 여성성’에 대한 각성만으로는 불충분한 부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박완서의 소설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미풍양속을 거스른 평등한 결혼 생활의 주창자가 젠더 규범에 부딪히면서 스스로 모순을 깨닫고 홀로서기를 하는 결말에 주목했다. 식탁을 작업대 삼아 글을 쓰는 주인공의 모습은 아직 미흡해 보이지만, 교수 아버지가 상징하는 남성적 공간과는 다른 여성 작가의 공간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본고는 이를 이후 여성 작가들의 출현을 예고 하고 미래의 독자의 역할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 지식의 형성과 여성 서사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연구로, 1980년대에 발표된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해방 소설 박완서의 『서 있는 여자』가 서구에서 수입된 페미니즘 명제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넘어설 방법을 모색한 소설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당대에 수용된 페미니즘 지식이 특정 명제

하나로 요약될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하고 보면, 본 연구는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라는 명제와 『서 있는 여자』 사이의 영향 관계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여성 해방 소설의 생산에는 페미니즘 이론의 유입과 지식장의 형성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연구 대상과 범위를 넓혀 살필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완서, 『나의 아름다운 이웃』, 문학동네, 2015.  
박완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수』, 문학동네, 2015.  
박완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문학동네, 2015.  
박완서, 『서 있는 여자』, 세계사, 2012.  
박완서, 『서 있는 여자』, 학원사, 1985.  
박완서, 「떠도는 결혼」, 『주부생활』, 학원사, 1982.4~1983.11.  
보부아르, 시몬 드. 이정순 역, 『제2의 성』, 을유문화사, 2021.  
보부아르, 시몬 드. 조홍식 역, 『제2의 성』 상·하, 을유문화사, 1995.

2. 단행본

- 루빈, 게일. 신혜수 외 역, 「여성 거래」, 『일탈』, 현실문화, 2015.  
버틀러, 주디스.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버틀러, 주디스.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변광배, 『제2의 성: 여성학 백과사전』, 살림, 2007.  
보부아르, 시몬 드. 이해윤 역, 『치녀시절·여자 한 장 때』, 동서문화사, 2010.  
보브와르, 시몬 드. 김인구 역, 『아름다운 影像』, 을유문화사, 1973.  
보브와르, 시몬 드. 오증자 역, 『아름다운 影像』, 정우사, 1976.  
보브와르, 시몬 드. 오증자 역, 『危機의 여자』, 정우사, 1975.  
암스트롱, 낸시. 오봉희·이명호 역, 「2장 가정 여성의 등장」, 『소설의 정치사』, 그린비, 2020, 121-194면.  
여성문학 편집위원회, 『여성문학』 창간호, 전예원, 1984년 1월.  
커크페트릭, 케이트. 이세진 역, 『보부아르 여성의 탄생』, 교양인, 2021.  
프리드먼, 제인. 이박혜경 역, 「1장 평등인가 차이인가」, 『페미니즘』, 이후, 2002.  
해러웨이, 도나. 민경숙 역, 「제7장 마르크시즘 사진 속의 '젠더': 한 단어의 성정치학」,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동문선, 2002.  
하미나, 『미처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동아시아, 2021.

3. 논문

- 강초롱, 「시몬 드 보부아르의 육체에 대한 윤리적 성찰: 『제2의 성』을 향한 비판에 대한 재고찰」, 『불어불문학연구』, 0(102), 2015, 5-42면.



- 권영자, 「여성의 인간화」, 『창작과 비평』 1977년 여름, 통권 44호, 693-698면.
- 김경연·전승희·김영혜·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여성』 2, 창작과 비평, 1988.
- 김문정, 「서 있는 여자에 나타난 계약으로서의 결혼과 ‘여성적 글쓰기」, 『한국문학연구』 60, 2019, 231-254면.
- 김보명, 「미국 제2물결 페미니즘에 대한 역사적 평가들에 대한 소고」,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138권, 2018, 11-37면.
- 김애령, 「여자 되기에서 ‘젠더 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한국여성철학』 13(-), 2010, 23-51면.
-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2012, 215-234면.
- 김영선,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실천과 여성학」, 『여성문학연구』 37, 2016, 39-62면.
- 김은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플랫폼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5, 2018, 7-36면.
- 김정은, 「또 하나의 집회: 여성주의 문화운동 ‘또 하나의 문화’가 지닌 ‘제3의 장소성」, 『구보학보』 27, 2021, 213-70면
- 문성훈, 「다시 보부아르로! 실존주의적 페미니즘의 논쟁적 재평가」, 『가톨릭철학』 25, 2015, 185-213면.
- 박미선, 「젠더」, 『여/성이론』(1), 도서출판 여이연, 1999.4, 317-327면
- 박완서 외,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 좌담」, 『또 하나의 문화』 제3호, 1987.
- 박지영, 「위기의 여자들: 보부아르 「위기의 여자」 번역과 1970년대 젠더/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9, 2016, 337-373면.
- 배상미,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서 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5), 2018, 73-117면.
- 신선훈, 「박완서 장편소설 『서 있는 여자』의 페미니즘 정치학적 의미: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본 시민성의 젠더 구조」, 『여성문학연구』 45, 2018, 37-71면.
- 안지영, 「여성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정치학: 『또하나의 문화』의 발간 주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 2021, 365-404면.
-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기획」과 80년대 ‘위킹맘」의 경계: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no.54, 2021, 46-76면.
-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국어국문학』 no.164, 2013, 489-518면.
- 이미영, 「강석경의 텍스트와 여성-성장-서사의 재맥락화」, 『구보학보』 25(1), 2020, 127-170면.

-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51), 2013, 571-612면.
- 이선미, 「작품해설: 서 있기를 '선택'하는 여자의 절망과 용기」, 『서 있는 여자』, 세계사, 2012, 466-487면.
-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또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 2018, 7-36면.
- 이한나, 「1980년대 가족법 개정 투쟁과 박완서의 소설: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8(4), 2017, 13-41면.
-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2016, 409-454면.
-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 no.1, 2007, 142-182면.
-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17(1), 2016, 23-48면.
- 정순진, 「'친의무봉'과 작위적 상황 설정」, 『비평문학』(8), 1994, 588-606면.
- 정우경,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 나타난 돌봄 주체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63, 2021, 85-112면.
- 조은, 「문학 텍스트 밖에서 박완서 읽기」, 『문학동네』 2021년 봄호 통권 106호, 122-135면.
- 조혜란, 「『제2의 성 Le deuxie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이용호의 1955년, 1964년 번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 한경희,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와 교섭하기」, 『페미니즘 연구』 16, no. 2, 2016, 267-315면.
- 허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 28호, 2012, 239-264면.

#### 4. 신문&잡지 기사

- 무어헤드, 캐럴라인· 시몬 드 보봐르 「『第二의性』以後」, 『세대』 제12권, 통권132호, 1974.7, 316-325면.
- 새가정 편집부, 「결혼한 남녀가 어떻게 평등할 수 있나: 박완서의 「서 있는 여자」」, 『새가정』, 1990, 82-83면.
- 경향신문, 매일경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Abstract>

## The Narrating of “The Second Sex”

– Focusing on Park Wan-seo’s 1980s Women’s Liberation Novel

Moon, Hwa

This study noted that the thesis of “The Second Sex” by Simone de Beauvoir, one of the major Western feminist theories, has been widely accepted in Korean society since 1975, and influenced Park Wan-seo’s creation of women’s liberation novels published in the 1980s. In addition, this paper attempted to reveal that Park Wan-seo’s novel presents a more advanced perspective in that it attempted to find a specific direction of practice beyond the gap between theory and reality through a narrative in which the “equal marriage” plan fails. The “equal marriage” attempted against the background of Korean society in the 1980s, when there was a “double bind” against women, was designed to overcome the social system, the origin of women’s oppression. In addition, this “equal marriage” model resonates with Beauvoir’s idea in that it criticized the middle-class nuclear family model, which was also the ideal norm of the time. Furthermore, the narrative of the failure of “equal marriage”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at it suggested the need to actively accept physical vulnerabilities and attempt to unite with other bodies, including mothers. This paper considered it meaningful in that “Standing Woman” actively accepted the feminist theory of the time while visualizing the conflict between theory and reality through comparison with Beauvoir’s proposition of “The Second Sex”.

Key words: Park Wan-seo, The Standing Woman, the women's movement in the 1980s, Simone de Beauvoir, The Second Sex, double bind, vulnerability of bodies

투 고 일: 2022년 2월 21일

심 사 일: 2022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10일

수정마감일: 2022년 3월 20일